

## 그림 속 차향기 은은하네~



그림 ① '차공양 탕화' 현의 스님작, 대흥사 소장.

담원 김창배 화백  
<다묵화첩> 펴내



그림 ② '존자한다 탕화' 작자미상, 송광사 소장.

차의 역사를 살피기 위해 우리는 '다서(茶書)'를 읽는다. 하지만 수많은 글자들 보다 때론 한 장의 그림이 더 많은 사실을 전해주는 듯하다. 나무 그늘 아래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모습이나 차나무를 기르고 차를 만드는 모습을 담은 다화(茶畵)에서 우리는 그림이 그려진 시대의 차 생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차 그림으로 유명한 김창배 화백은 최근 펴낸 <다묵화첩(茶墨畵帖)>(인사동문화)에서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다화와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차문화가 회화와 함께 공존해 왔음을 화첩을 통해 밝히고 싶었다"는 김 화백은 "당시 현실에서 이루어졌던 차 생활을 그림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차 그림'이라 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김 화백은 우리나라의 차 그림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유형은 사찰에 전해지는 불화나 나한도 등이다. 선 수행과 차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 차를 준비하거나 차를 마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전남 송광사에 소장된 16나한도에는 차를 준비하는 동자가 한 모퉁이에 서서 나한에게 차를 올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한 화폭에 여러 명의 나한을 그리기도 했는데, 이것을 '나한다연도(羅漢茶宴圖)'라 한다. 현의 스님의 '차 공양 탕화'(그림 ①)나 작자 미상의 '존자한다 탕화'(그림 ②) 등이 이에 속한다. '차 공양 탕화'는 정확히 그려진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현의 스님이 그렸다고 전해진다. 차의 성지 해남 대흥사에 소장된 이 탕화는 당시 불가에서의 차 생활이 일상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전남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는 '존자한다 탕화'는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존자(尊者)들에게 차를 달여 헌다하는 풍경을 그리고 있다.

### 불화·기명절지도·산수화에 반영 차 탕화, 사찰의 차문화 잘 보여줘 다동·동지승 조선후기부터 등장



그림 ③ '석전물로 차를 달이며' 다산 정약용작.

두 번째 유형은 그림 속에 차를 다루는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일명 기명절지도(器名折枝圖)나 책거리 그림, 또는 부적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명절지도란 도자기나 청동기 등의 각종 그릇에 연꽃, 국화 등을 새긴 그림을 말한다. 조선후기의 선비화가 강세황(1713-1791)은 기명절지도의 대가로, 차와 관련된 다양한 그림을 그렸다. 장승업도 기명절지도의 일가를 이루며 특색 있는 우리 차 그림의 유형을

형성했다. 작자 미상의 '초당도'는 풀로 엮어 만든 정자에 차를 마시던 용구와 다구들이 놓여 있는 모습만을 담고 있다. 세 번째로는 산수화를 들 수 있다. 조선시대 그림에서는 중국처럼 차와 사람을 명확하게 묘사한 작품은 많지 않으나,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는 풍취와 차와 관련된 상황을 그리고 있다. 조선후기로 가면서 차를 준비하는 다동(茶童)과 동자승이 등장하게 된다. 조선시대 실학자이자 차를 즐겼던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석전물로 차를 달이며'(그림 ③)는 차와 관련된 기물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바람이 일어나니 차 끓이는 연기는 죽림(竹林)에 피어오르고 석전 가을 물로 향기로운 차를 달이다'라는 글을 통해 차 마시는 풍취를 전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제공=인사동문화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진년오롱·철관음·오롱차  
대홍포·화차·인삼오롱

외 40여가지의 차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 H.P 017-411-0882

###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 16. 정보화 사회의 허식 ①

디지털 혁명으로 가정과 직장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지식을 접하는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의 확산은 접근성이 쉬워졌다는 순기능과 함께, 난무하는 악식(惡習)과 허식(虛識)이라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보이차에 관한 지식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은 보이차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정보는 어느 정도 믿을만하며 깊이가 있는가? 이전에 맞지 않는 궤변을 정보라 믿고 자신의 판단을 위태롭게 만든다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기 때문에, 감칠맛이 부족하고 떫은 맛이 강하다. 이러한 원료로 녹차를 만들 경우 품질이 떨어지기에 발효 차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반대로 온도가 낮은 북쪽 한랭지역의 차나무는 질소화합물의 합성과 축적작용이 유리하기에 아미노산, 카페인 등 질소화합물질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에 차나무의 뿌리에서 흡수된 아미노산 성분이 줄기를 통해 잎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어 차의 맛 중 감칠맛이 많아져 녹차를 만드는 데 적합하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품종의 차나무일지라도 위도에 따라 화학성분의 함량도 차이가 난다. 운남성 맹해에서 자란 저엽종(繡葉種)을 절강성 황주에 심었더니 추위를 견디지

### 운남 지역 茶 美洲에 심으면 보이차인가? 동종 차나무라도 위도 따라 성분 달라져

2002년에 제정된 보이차의 정의에 대한 키워드는 산지, 원료, 가공법이다. 산지에 대해 누군가가 "운남 대엽종 종자를 아프리카나 미주에서 재배한다면 그것은 보이차가 아니라 말인가?"라고 되묻곤 한다. 이에 대해 필자의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왜 안 된다는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다.

운남 지역은 차나무의 원산지로 지금도 야생 차나무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이다. 이곳을 빙하기 때와 생태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을 정도로 야생식물들이 원시상태로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차나무의 형태는 교목형, 반교목 그리고 관목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차나무들을 별개의 종류로 생각하고 있으나 연구에 따르면 교목형이든 관목형이든 차나무의 세포 속에는 모두 30개의 염색체가 있다. 이는 곧 가지 형태의 차나무일지라도 하나의 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학문적으로 차나무 형태 중 교목은 원시형, 관목은 진화형, 반교목은 과도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관목형 차나무들은 모두 교목형에서부터 진화된 차나무라는 것이다.

위도가 낮은 남쪽 열대지방에서는 잎으로 절단된 아미노산 성분이 떫은맛을 내는 폴리페놀로 전환되

못하고 동사(凍死)했다. 그러나 주위의 사천(四川)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심어 추위에 대한 내성을 기른 후 다시 황주에 옮겨 심었더니 동사하지는 않았으나 나무와 잎들이 왜소화(矮小化)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같은 뿌리의 차나무에서 자란 차잎일지라도 맹해와 황주에서 자란 차잎의 성분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위도가 낮은 남쪽 맹해의 차잎에서는 폴리페놀, 카페인 등 내용물들이 황주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이와 반대로 아미노산과 카페인 등 질소화합물들의 함유량은 황주의 차잎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는 보이차의 원료로는 맹해의 차잎이 적합한 반면 황주의 차잎은 녹차를 만들기에 적합하다는 과학적 결과이기도 하다.

이것이 왜 같은 차나무일지라도 다른 지역에서 자란 차잎으로는 보이차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다.

■ 한서대학교



맹해 교목형 차나무.

### 배관과 보일러가 필요 없는 원적외선 필름난방 시스템

“월 5,000원으로 난방비 걱정 끝”

**중요특징의 특징**

- 한겨울 난방비가 전기열선타입의 30%, 기름보일러 대비 70%이상 절감됩니다.
- 간편하고 빠른 시공으로 당일 시공이 가능합니다.
- 동일 시공하고 동일시공이 가능합니다.
- 두께가 얇고 경량이라서 건물 하중에 영향을 없습니다.
- 보일러실이 필요 없으므로 공간절약이 되고, 관리 유지가 편리합니다.
- 기존 전기열선의 단점을 100% 보완하였습니다.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므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 제품의 수명이 반 영구적입니다.
-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보다는 건강에 좋은 원적외선이 다량방출됩니다.
- 원적외선 복사열로 인하여 방한 기드 훈기가 탁월합니다.
- 철저한 개별 난방 시스템으로 필요한 부분만 제어 가능합니다.
- 혹한에도 동파 걱정이 없습니다.
- 필요할 때 잠깐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은 바퀴만 따듯한 일부 전기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난방용 필름... 금호에너지에서 설치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금호 에너지 KUH/EO Energetech. 상담/문의 031)422-0467

### 5,000년을 기다려온 운명학의 제왕 이것이 진짜 육임학(六壬學)이다!!

수입 적중률 1위

**운세**

육임학은 쉽게 배울 수 없는 고등학문으로 육임학의 비법을 수록하여 누구나 교육은 필요 없고 육임운세방 CD로 곧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년매출 2조원에 도전하는 육임운세방! 21C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 육임운세방 선택사업

- 육임인터넷 운세방 : 인터넷 유료사이트 프로그램 홈페이지 및 상담용CD 2매 (30,000,000원)...무인시스템
- 육임060,070,080 ARS 운세통신 : 통신단말기, 상담용CD 2매공급 (15,000,000원)
- 육임상담원 가입 : 본 홈페이지에 상담원 광고(2년간 계약) 및 전문상담용 CD 2매 (10,000,000원)
- 육임학 CD판매 :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전문상담용 CD 2매 (3,500,000원)

※금리가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및 홍보물을 발송해 드립니다.

**육임학 고객센터 1588 - 2675**  
www.yukimunse.com

###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보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 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 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급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